순천시, 입원 근로자에 소득보전…상병수당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상병(傷病)수당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7월 1일부터 3일 이상 입원 시 하루 43,960원 지급

순천시는 최근 근로자가 아프면 치료기간 소득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상병(傷病)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 제도로, 보건복지부는 2025년 도입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에 전국 63개 지방자치단체가 응모하여, 순천시를 비롯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6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복지부는 6개 지자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눠 서로 다른 상병수당 시범모형을 적용해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순천시의 경우 지역 취업자가 3일 이상 병원에 입원 시 최저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루 43,960원씩 의료이용일수만큼 지급받게 된다. 최대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90일이며, 이 기간 동안 회사에서는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이다. 시는 4월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사업장,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그간 코로나19 등 각종 질병으로 몸이 아파도 선뜻 쉬지 못했던 근로자들이 이번 시범사업 선정으로 건강을 회복하여 무사히 일터로 복귀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여수시, '제5차 문화도시' 선정 위해 행정협의회 발족

박현식 부시장 단장, 17개 핵심 부서장으로 구성…6월 중 문체부에 공모 신청

여수시가 지난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여수 문화도시 추진 행정협의회 발족식'을 갖고, 문체부의 제5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한데 뭉쳤다.

'여수 문화도시 추진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부단장(관광문화교육국장)과 도시의 문화를 책임지는 17개 핵심 부서장으로 구성됐다.

행정협의회는 앞으로 여수시의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부서별 실무협의회와 공유테이블을 운영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지정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해 2021년 제4차 (예비)문화도시 지정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1차를 연장하는 계획에 따라 6월중 공모를 거쳐 9월 최종발표를 하게 된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예비도시로 1년간 사업(시 예산)을 추진하고, 그 과정을 평가해 법정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될 경우 5년 동안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박현식 행정협의회 단장은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시민사회가 중심이 된 준비위원회와 우리 행정협의회가 힘을 모아가겠다"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목표로 부서별 역할을 분담해 문화도시 선정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여수=오상호 기자

광양시, 일제 방역소독 실시

효율적이고 친환경적 방역소독으로 시민건강 보호

광양시는 각종 위생해충으로부터 감염병 예방을 위해 12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4월부터 일제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광양시는 9개 권역 52개 코스로 나눠 주 5회 이상 위생해충이 발생하는 쓰레기 배출지, 공중화장실, 밀집주택지 주변, 공원 등에 분무·연무 소독을 시행한다.

밀폐된 나무숲, 하수구, 축사 주변에는 연막소독을, 정화조, 아파트 집수정, 웅덩이 등에는 유충 방제를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방역작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해충 발생 서식지를 제거하고, 해충 집중 발생지역에는 포충기 140대를 가동 중이며, 매년 권역별 방역소독 전문업체를 선정해 전문적으로 방역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2022년 올해 선정된 업체는 장원환경(주), ㈜오도, (유)동부환경, (유)한국방역공사, 광양컨부두공용관리(주), ㈜HR-PORT, (유)대진방역, (유)백운, ㈜신영 등 9개 업체로 지난 3월 28일 계약을 체결해 11월까지 9개월간 방역 취약지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방역소독을 진행한다.

광양=심종섭 기자

보성군, '문예회관 문화가 있는 날 공연산책' 공모 선정

국비 2천1백만원 지원…다음달부터 10월까지 공연 무대 올려

보성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공연산책'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천1백만 원을 지원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사업 선정으로 보성군은 5월부터 10월까지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첫 번째 공연은 자연사랑과 환경보호 주제로 다양한 퍼포먼스와 볼거리가 가득한 뮤지컬 ▲바다 속 모험이야기'아쿠아쇼'(5월 26일)다. 송경민 작가의 그림 동화를 각색하여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 줄 가족뮤지컬 ▲로봇똥은 6월 30일 상연된다.

환상적이고 입체적인 무대로 즐거운 상상의 세계가 펼쳐지는 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7월 28일, 오랜 시간동안 전 세계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아 온 명작 ▲백설공주는 10월 25일 관객들과 만나게 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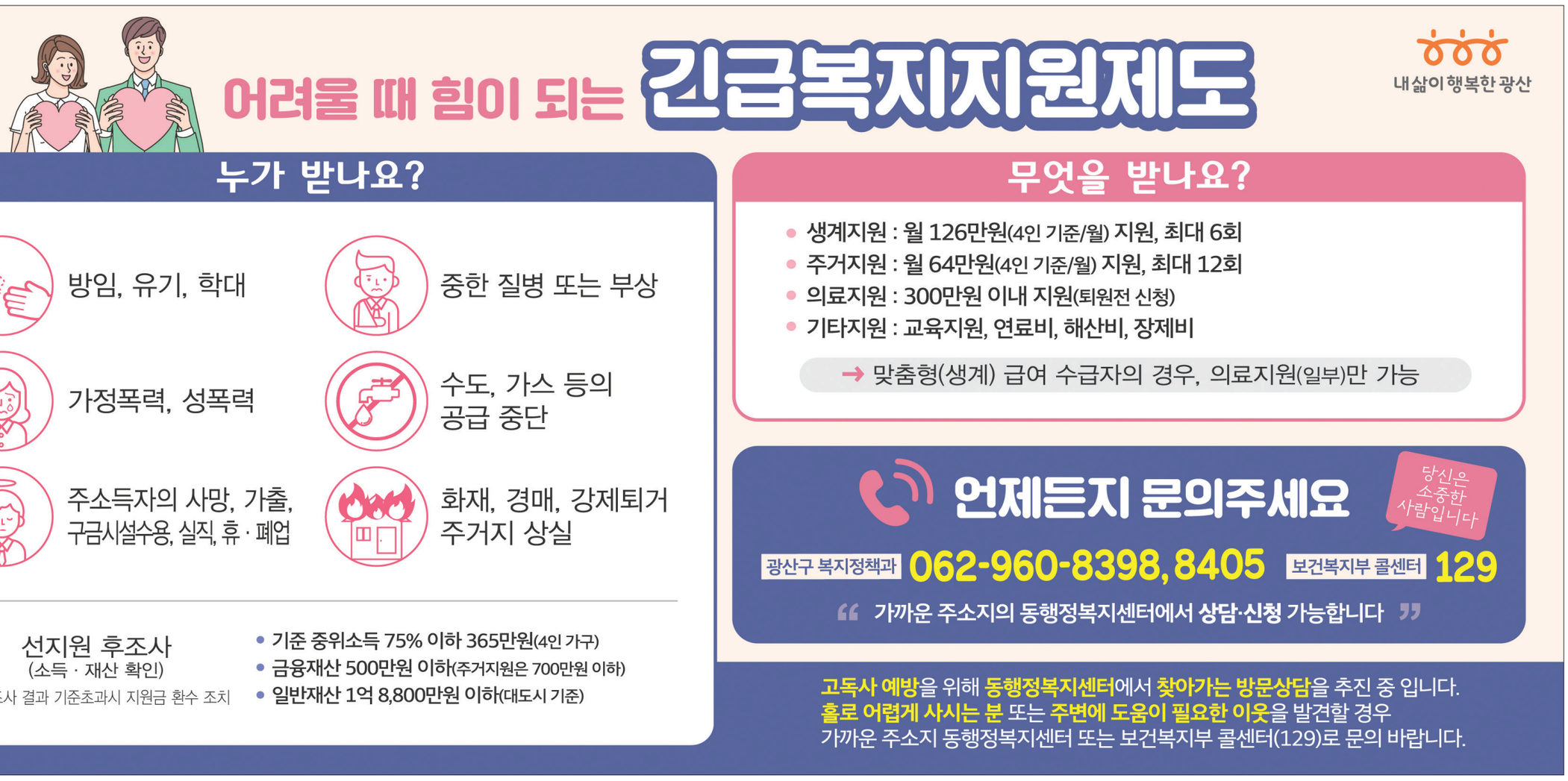
군 관계자는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많은 군민들이 관람하여 코로나의 장기화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지역의 다양한 공간에서 진행되는 지역 밀착 맞춤형 공연 프로그램이며,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사람이 있는 문화를 실현하고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진행되는 사업이다.

기동취재본부

고흥군, 아이들의 안전한 생활 위한 방역 소독 실시

고흥군은 면역력이 취약한 아동이 장시간 이용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지역 내 어린이집(20개소), 지역아동센터(17개소), 그룹홈(2개소) 등을 대상으로 '방역 소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신규시책으로 방역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약품을 사용, 시설의 내외부를 정기적으로 살균·소독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4월과 5월에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기동취재본부